

미·이란 핵 협상 재개…군사력 증강 속 힘겨루기

미군 항모·미사일 증강…이란, 보복 경고 긴장 고조
‘그림자 선단’ 유조선 나포 검토 속 유가 변수 부담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 군사력 증강과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서 이동식 트럭 발사대에 탑재된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기존 반고정식 발사대 대신 고기동 전술트럭(HEMTT)에 실린 형태로, 필요 시 신속한 재배치와 방어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 배치를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알우데이드 기지뿐 아니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튀르키예 등 중동 내 주요 미군 기지에서도 항공 전력이 늘어난 상황이 확인됐다.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RC-135 정찰기 1대, C-130 수송기 3대, KC-135 공중급유기 18대, C-17 수송기 7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달 촬영 자료와 비교해 공중급유기와 대형 수송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요르단 무와파크 기지에도 F-15E 전투기와 A-10 공격기, EA-18G 전자전기 등이 대거 배치됐다.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역시 1월 말과 2월 초 위성사진을 비교할 때 항공기 수가 증가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군사적 경계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자국이 공격 받을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이 가능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하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최근 남부 반다르아바스 인근 해상에서는 드론 운용 함정 'IRIS 사히드 바게리'가 잇따라 목격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란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이후 소진된 미사일 전력을 상당 부분 복구했고, 수도 테헤란 등 여러 지역에 지하 미사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협상을 타결하거나, 지난번처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으며, 추가 전단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에서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적 압박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언급하며 “그들은 내가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이란 협상은 “매우 다르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제재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비밀리에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을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국제유가 급등 우려로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림자 선단’은 약 1000 척으로 추산되며, 제재 대

상 국가의 원유를 중국 등지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나포 시에는 미군 인력과 호위 함정이 투입돼 선박을 미국 또는 원유를 보관할 수 있는 제3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드론과 고속정이 미 국적 유조선에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 해군이 긴급 출동해 대응했다. 이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이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재개된 핵 협상의 성패가 향후 정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제한과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 활동은 허용돼야 하며 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적 해법과 군사·경제적 압박이 교차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연합뉴스

LA, 트럼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다

ICE 사유지 사용 금지령…배스 시장 “연방정부로부터 도시 보호”

미국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는 새 조치를 내렸다. 캐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 소유의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산하기관이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하고, 25일 안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및 심문, 작전 장소로

쓸 수 없다’는 팻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공간(Non-public spaces)에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지 않은 한 ICE 요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민 단속 조치가 벌어지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녹화하고, 안전할 경우 ICE 요원의 성명과 배치를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양도할 경우 이에 대해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

용의 조례안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배스 시장은 CBS뉴스에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하는 행동과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배스 LA 시장이 도심에 일시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사태가 수습됐지만, 여전히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큰 상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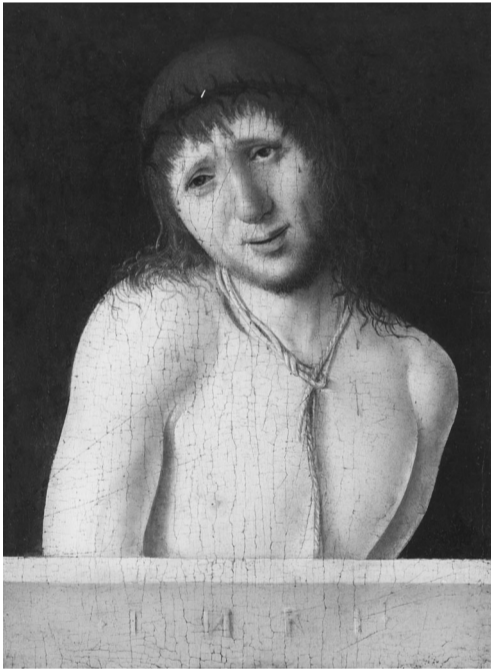
日 “조세이 탄광 유골 신원 확인 한국과 협력”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야마구치현 우베(宇部)시 조세이 탄광에서 추가로 발굴된 유골 신원 확인에 대해 “한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우베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유골 발굴을 위한 잠수 작업 중 대만 잠수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해저탄광으로, 현지 시민단체 노력으로 작년 8월 잠수 조사에서 두개골과 대퇴부 뼈 등 인골 4점이 수습됐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이달 3일부터 잠수 조사를 재개해 6일 다시 유골 발굴 성과를 올렸으나 대만인 잠수사가 7일 사망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伊, 15세기 명작 ‘에케 호모’ 217억원에 매입

이탈리아 정부가 15세기 르네상스 거장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회화 작품 ‘에케 호모’〈사진〉를 1490만 달러(약 217억원)에 매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날 이런 사실을 전하며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을 확장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당초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한발 앞서 확보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작품이 전시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에케 호모는 신약성서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를 가리키며 한 말로, 예수的高난스러운 삶을 상징한다. 양면의 패널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가시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와 참회하는 성 예로니모의 이미지가 각각 담겼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은 약 40점으로 이중 약 절반을 이탈리아 정부가 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복 입은 브라질 영부인, 한인 사회와 교류

틀라 방한 앞두고… ‘한복 증정 외교’ 세번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브라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59·사진) 여사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한인 사회와의 교류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 지회 등에 따르면, 다시우바 여사는 전날 상파울루 총영사관저에서 브라질한인회 및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복을 선물로 받았다. 해당 한복은 KOWIN 브라질 지회 이인숙 전 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우바 여사는 하얀 저고리와 푸른 빛이 감도는 치마 차림으로 두 손을 모은 채 촬영한 사진과,

한인회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는 영상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사진 속 배경에는 병풍과 자개 공예품, 다식 등 한국 전통 소품이 함께 놓여 한국적 분위기를 더했다. 브라질 대통령이나 주지사 배우자를 상대로 한 ‘한복 증정 외교’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한복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가 양국 간 상징적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시우바 여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한복을 선물로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한복을 “축제와 결혼식, 명절, 문화 행사 등에 착용하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브라질 한인회는 1963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약 5



만 명의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960년대 이후 한인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일자리 창출과 생산체인 강화, 혁신과 가족 경영을 통해 브라질 산업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